



준비와 목탁

강지연 기자

jjygang@buddhapia.com



조계종 수장이 교회서 투표?

교회투표소가 또 많았다.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정당한 한 표를 행사하려 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관 스님이 주석하는 경국사가 위치한 정릉3동은 최근 총선 때는 개인공장 건물, 대통령선거 때는 인근 복지관을 투표소로 활용했던 곳이다. 교회투표와 관련 올해 2월부터 불교계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서 하던 투표를 종교시설로 옮긴 곳이 생긴 것이다.

물론 교회에서, 종교시설에서 투표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종교시설 대부분이 교회에 치우쳐있기에 문제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문제는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져왔다. 문제의 심각성에 집중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2월 27일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로 인권이 침해됐다는 4명의 청구인을 공모해 작성한 청구서다. 이에 3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이끌어냈다.

당시 종자연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전국 투표소 중 종교시설 내 투표소 비율은 8.9%(1만3178개소 중 1172개소). 서울은 무려 23.1%(2210개소 중 511개소)여서 지역별중현상까지 드러났다. 본지 조사에 의하면 18대 총선에서는 서울의 경우 전체 2210개 투표소 가운데 426개소(19.3%)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379개소(17%)로 511개소를 기록했던 대선 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줄어들고 있지만 인권의 권리가 무색함을, 선관위의 편의주의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교회투표소는 교육감 선거에서만 봐도 종교시설 전체 379개소 가운데 348개소, 가톨릭을 포함하면 374개소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다. 이번 투표소 가운데 짙은 불광사 딱 한 곳이다.

교회투표소에서의 선교행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타종교인들이 교회에서 투표를 하면서 겪는 불편함은 '편의'라는 이름으로 쉽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편의주의의 행적에서 벗어나 인권의 권리를 심사숙고해 실현하길 바란다.

한나라당 '종교편향 금지' 법안 추진

조문환 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자의 특정종교 편향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에 본격 나섰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가 7월 29일 조계종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다음 날 조문환 의원(비례대표)이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조문환 의원은 7월 30일 공직자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법령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된 직무 수행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 절차 명문화, 피해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한나라당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조문환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

조 의원은 "최근 정책 집행과정에서 종교편향성 시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 통합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국 현안을 푸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문제를 종교

됐다"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공무원에 의한 종교편향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무원 복무규정 등 하위법령이나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종교적 편향 지양(또는 중립) 규정 인 명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나라당 제6정책위는 29일 총무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 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정치 중립 의무와 같은 '종교 중립 의무' 조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 호법부장 정만 스님, 김영국 총책특보, 박희승 기획차장, 권오국 종교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정우식 시국법회추진위 상황실장과 나경원 의원, 정각희 간사 조문환 의원과 김선길 보좌관 등이 참석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직자의

종교 중립을 위한 입법에 공감하고 종교편향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만 스님은 "종단에서는 '국가공무원' 이외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에도 '종교 중립'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의 필요하다면 공청회 같은 것의 개최도 추진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이번 입법조치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및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선언구절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화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조항이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우 기자

1면에서 계속

7월 30일 조계종 대변인 승원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장을 범 죄자 취급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 정수 경환정장 퇴진 등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정부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7월 31일에는 조계종 중앙총회도 한복소리를 냈다. 조계종 금강회, 무량회, 무차회, 보림회, 화엄회 등 중앙총회 종책모임은 연대성명서를 통해 "지관 스님 과잉 검문은 불교말살 작태"라 질책하고, 하인규 해제 후 임시총회를 소집해 총무원 집행부와 연대해 대처할 뜻을 밝혔다.

선문 스님(중앙총회 의원)은 "원로회의와 중정 교시까지 건의하겠

다"고 말해 불교계의 반이명박, 반정부 정서가 심각함을 대변했다.

30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는 지관 스님마저 범법자로 취급해 종교편향성을 또 다시 명백히 드러냈다"는 논평을 냈다.

불교계의 거세지는 반정부 정서에 한나라당은 곤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월 30일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TV방송에서 지관 스님 검문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한 것에 이어, 7월 31일 박희태 대표는 "불교계 노여움을 풀기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남·북 합심 해외유출 문화재 되찾아야"

인목 스님 등 환수운동 협의차 평양 방문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실의례' (일본 국내 소장품)를 비롯한 해외유출 문화재는 7만5000여 점. 2007년 12월 조계종이 출간한 <해외유출불교문화재> 일본편에 수록된 문화재 수는 1만477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조선왕실의례환수위 공동의장 인목 스님(봉선사 주지) 등 고계 인사들이 '해외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운동' 협의를 위

해 8월 5~9일 평양을 방문한다.

인목 스님과 김원웅 前 국회의원,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된 남북단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조선왕실의례' 환수를 위한 반환 요청서를 작성해 일본 수상과 의무성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구라 컬렉션 ▲평남 대동군 출토 낙랑유물 ▲개성 화상사 폐업경 ▲테라우찌 문고 ▲규장

각 대출도서 938책 등 일본 소장 약탈 문화재 반환도 협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은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을 근거로 문화재반환 문제를 종로했다고 주장해 남북간의 문화재반환운동은 한계가 있다. 북측은 2002년 평양선언으로 일본 총리가 협력을 약속한 상태라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에 남북공동노력"이라 명목취지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6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저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원호·민해스님 메달 제작

조폐공사 1만장 한정판매

신라 고승 원호 대사와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침묵>의 시인 민해스님 메달이 제작됐다.

조폐공사(사립)사 정해운은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 제8호와 제10호에 원호 스님과 민해스님을 각

각 선정했다고 7월 28일 발표했다.

메달 크기는 직경 40mm에 중량 33g 정도다. 슬립 책자형 케이스와 별도로 6페이지 지면에 인물과 관련된 유적 사진, 업적 등을 수록해 메달이 제작됐다.

조폐공사(사립)사 정해운은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 제8호와 제10호에 원호 스님과 민해스님을 각

태고종 도서 영산재 시연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의 중요무형 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프랑스에 이어 일본 오사카에서 시연된다. 육천범 음대 영산재범음단은 8월 22, 23일 오사카문화원 대강당에서 모두 세 차례 영산재를 시연할 예정이며 각 공연은 '깨침의 소리'와 '수행자의 하루'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김성우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 비구니 통학 강원 -

◆학장 : 석도기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제천 금강사를 창건하여 여성불자 교육도량으로 부설하고 아래와 같이 통학 학인을 모집합니다.

◇교육시간 :

매월 음력 10일 오후 2시 ~ 음력 11일 정오 12시
매월 음력 20일 오후 2시 ~ 음력 21일 정오 12시

◇개강일 : 음력 7월 20일 (양력 8월 20일)

◇교육내용 : 전통강원에서 교육하는 사미, 사집, 사교, 대교 과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며 의식교육을 필요에 따라 지도하고 특강을 통해 부족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 2년(강의를 녹음한 통신교육도 가능함)

◇강주 : 활안 한정섭스님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전화 겸 팩스 043)646-3800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대학장 : 호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품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과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학원

◆원장 : 활안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강 : 2008년 9월 8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미, 포교원운행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불교예술대학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개강 : 2008년 9월 4일 목요일